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1호 [루게 제24714호] 주제 103(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떠올린 행복의 요람 평양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강성조선의 미래를 키우는 위대한 사랑에 떠날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화려하게 일떠서 준공되었다.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혁명의 계승자들인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라던 억만금도 아끼지 않는 어머니당이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은정어린 선물이다.

선군시대 건설의 대변영기를 빛내이며 특색있고 아담하게 건설된 육아원, 애육원에는 보육실과 교양실, 운동실과 치료실, 지능놀이실과 야외 및 실내놀이장, 갖가지 유희시설, 오락기재들과 교통공원을 비롯하여 보육과 교육요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그르히 갖추어졌다.

행복의 신자들이 편이 펼쳐지는 사회주의락원에 멋쟁이집이 새로 일떠섬으로써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늘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평생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릴수 있게 되었으며 원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로동당시대의 메아리로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려 훌륭한 일떠섬 평양육아원, 애육원 준공식이 27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태양의 빛발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밝은 미래를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 《선군시대에 만년대대의 창조를 더 많이 마련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 있었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차희철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평양육아원, 애육원 일꾼들과 종업원들, 원아들, 시간의 당, 정권기관, 련관부문 일꾼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모신 민족적근지와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송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빛나게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은 친부모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 직업적인 혁명가가 되어 원아들이 항상 웃음속에 명랑하게 생활하도록 따듯이 보살피며 애달의 선군조선의 기둥강들로 튼튼히 키워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건물과 시설, 비품들을 알뜰히 애호관리하며 모든 환경을 보전위생적, 교육학적으로 맞게 더 잘 꾸러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건설부문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주체적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높이 내세워 주신 영웅부대, 건설교육자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세를 따라배워 후대들과 인민들을 위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워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국방위에 단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도록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보육실과 교양실, 자연관찰실, 물놀이장, 식사실, 내정 등 모든 생활실들과 놀이터들이 아이들의 설레에 맞게 손색없이 꾸러진데 대해 경탄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하나하나의 방들과 비품들, 유희 시설들과 주변 나무 푸르름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듯이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원아들에게 무엇이든 더 나은것이라고 늘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은정넉친 사랑과 로고가 어려와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불수록 활황한 평양육아원, 애육원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머니당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려 강성변혁을 우리 조국의 앞날에 대한 신심과 투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준공식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어머니사랑속에 평양육아원, 애육원이 화려하게 일떠섬으로써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더 높이 과시되게 되었으며 원아들은 세상에 부럼없는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황홀하게 솟아오른 아이들의 궁전은 절세의 위인을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들을수 있는 사랑의 새 건설을 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는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거둔 뜻이 있어 원아들에게 친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시였으며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새로 잘 꾸러줄데 대한 은정없는 조치를 취해주셨다.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집을 지어주어야 한다시며 몸소 명당자리에 그 터전을 잡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강력한 군위부대를 파견해주시고 건설방향과 방법을 일일이 밝혀주시였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형성안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 건설자를 여러차례 찾으며 공사현장을 주시구석 돌아보시며 가구비품들과 유희시설, 내부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환경을 원아들의 연령에

적합하게 맞게 손색없이 꾸러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당장건기념일전으로 공사를 완공할 결의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전투를 벌여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요양, 건물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도면에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러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당장건기념일전으로 공사를 완공할 결의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전투를 벌여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요양, 건물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도면에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러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당장건기념일전으로 공사를 완공할 결의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전투를 벌여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요양, 건물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도면에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러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당장건기념일전으로 공사를 완공할 결의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전투를 벌여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요양, 건물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도면에

이바지할수 있게 손색없이 꾸러도록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당장건기념일전으로 공사를 완공할 결의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투쟁기풍으로 전투를 벌여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완공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또다시 찾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군시대의 걸작품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군인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원아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요양, 건물관리와 운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령도자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도면에

당정채용위원회의 불바람 세차게 일으키자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려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의교양지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앞날의 조국은 우리 소년단원들이고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제위가 어려웠던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궁전의 외부시공과 내부장식, 합숙건설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로부터 설계, 자재보장, 건설력향면에서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마음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궁전 개건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궁전의 외부, 내부공사와 함께 보조조건들과 합숙을 비롯하여 새로 건설하는 대상들에 대한 팔조, 축조공사 등 모든 공사가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공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조전에 맞게 공작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지휘관들은 내부에비를 총동원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셨고 다에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구장과 무대, 중앙홀을 비롯한 궁전의 중요부분공사를 맡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공사의 속도도 높이며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데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수평판과 여러 조식

들에 대한 공사를 맡고있는 군인건설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공사에 필요한 기공구들을 자체로 보장하면서 공사기일을 앞당기고있다. 합숙건설을 맡고있는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1, 2층골조공사를 끝내고 부재담기와 축조, 미장작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을 나라의 향으로 떠맡드는 우리 당의 송고한 구상을 실현으로 받아들이는 군인건설자들의 총정에 떠날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세상에 놀랄데 없는 아이들의 사랑의 요람, 행복의 궁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며 날이 변모되어가고있다.

조 향 미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날려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의교양지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앞날의 조국은 우리 소년단원들이고이며 동무들의 모습에 조국의 래일이 비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동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만들어 넘겨주려고 합니다.》

지난 5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제위가 어려웠던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며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궁전의 외부시공과 내부장식, 합숙건설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로부터 설계, 자재보장, 건설력향면에서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마음쓰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송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궁전 개건공사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의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놀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궁전의 외부, 내부공사와 함께 보조조건들과 합숙을 비롯하여 새로 건설하는 대상들에 대한 팔조, 축조공사 등 모든 공사가 립체적으로, 전격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공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조전에 맞게 공작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지휘관들은 내부에비를 총동원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셨고 다에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구장과 무대, 중앙홀을 비롯한 궁전의 중요부분공사를 맡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공사의 속도도 높이며 최상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데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수평판과 여러 조식

발전기실 건물 축조공사 련이어 완성

희천 8호, 9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떨쳐 일어나 불바람을 가리지는 것이어 해내야만 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청천강전역에서 비약의 열풍이 계속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는 가운데 희천 8호와 9호 발전소 건설장에서 또다시 위훈의 새 소식이 전해지고있다.

현장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11일 희천 8호 발전소 건설을 맡은 평안남도려단에서, 지난 13일에는 희천 9호 발전소 건설을 맡은 평양시려단에서 발전기실 건물 축조공사 련이어 완성이 자랑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희천 9호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연제건설의 마감공정인 다리보조벽이,

발전기실 건물 축조공사 련이어 완성이 자랑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희천 9호 발전소 건설장에서는 연제건설의 마감공정인 다리보조벽이,

물공사를 끝낸 즉시 좌안인 제공사와 동시에 발전기실 건물 축조를 내밀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성천군, 개천시, 은산군에대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기동공구, 드릴기와 벽체 축조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연공작업을 담당한 북장군과 숙천군에대 전투원들은 천정기중기보들이 사소한 편차도 없이 제 위치에 정확히 설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중기운전공들과의 긴밀한 협동하에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도입하면서 매일 말은 공사과제를 1.5배이상으로 해제하였다.

평양시려단에서는 건축공사를 위한 발대목과 발판, 활차 등 자재준비를 신형철을 동시어 천정기중기보와 블로크쌓는에 큰 힘을 넣으셨고 건물 축조공사를 본래있게 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 브라자 빌도착

【브라자빌 10월 27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콩고공화국을 공식적인 방문하기 위하여 27일 이 나라의 수도 브라자빌에 도착하였다.

강하국 보건상, 공석용 외무성 부상, 서경복 대외경제성 부상, 기타 수행원들이 함께 도착하였다. 김영남동지와 일행은 땡방 은강가 국회 상원 제 1부의장, 알베르 은우야 외무성 부총서기, 국회의원과 외무성 관계자들을, 콩고공화국측 우리 나라 련시대리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모택제들의 호위를 받으며 속도로 향하였다.

이에 앞서 김영남동지와 일행은 26일 수단공화국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알 파티호 이젠딘 알 만수르 민족회의 의장, 모하메드 유세프 아브달라 민족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민족회의 상무위원회원들, 외무성 관계인사들과 김철수 수단공화국측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승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떠올린 행복의 요람

평양 육아원, 애육원 준공식 진행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구성공작기계공장 1가공직장 노동자 백문규동무의 소행에 대한 각계의 반향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비록 맑은 적개하고 결의는 소박하게 다져도 당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당앞에 다진 맹세를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실천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당성이 강하고 당파 혁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당보에 실린 기사 《일편단심 당과 피

줄을 잇고 삶을 빛내어온 애국자》의 주인공인 백문규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강성국가건설에 힘차게 떨쳐나선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혁명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한 백문규동무처럼 살며 일해갈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어머니당의 자식된 도리를 다해가겠다

동명양화발전소 지배인 정철남은 백문규동무의 한생이 아들로 자기 수명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걸음을 충실성의 한생, 가장 긍지높은 삶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위위도 한생토록 조국을 위하여 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백문규동무는 자기의 일터를 당이 맡겨준 초소로 여겼기에

평양자동차기공공장 로동자 김철명은 백문규동무의 정신세계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본받아야 할 사업기풍과 일본세를 보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정을 토로하였다.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생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수동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난 50여년간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 변함없이 일하는 백문규동무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람이 한생을 값있게 산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귀중한 모범을 바로 백문규동무가 보여주었다. 그가 그렇게 어렵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킬수 있었던것은 바로 혁명적사

람이란사람을 따듯이 품어주고 보살피는 우리 당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신념이 확고하였기때문이다.

인제나 당과 승리를 같이하며 자랑한 로동적창조물과 당과 사회주의를 옹위하는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기질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를 받들어 투쟁해온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

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그 어떤 광풍이 불어오도 오직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 고하고 행동하며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정으로 승리하는 조선로동계급의 본래의 온 세상에 떨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기개공업성 국장 박춘근은 기사를 몇번이나 읽어보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지난 55년간 맑은 일터를 굳건히 지켜온 백문규동무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 공장에 자주 내려가는 과정에서 백문규동무가 소문난 혁

신사라는것은 알고있었지만 그의 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차있는줄은 미처 몰랐다.

그 기간 지난날 무슨 일들을 없었는지, 기쁨 때도 있었지만 마음속피로쯤 또한 많았을지, 하지만 백문규동무는 변함없이 한직종에서 자기의 초소를 굳건히 지켜왔다.

당과 조국을 위해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겠다는 높은 이상과 깨끗한 양심을 안고 살며 일했기에 그는 행복의 절정에 오를수 있었다.

신념과 의리로 하는것이 혁명

이며 그것으로 하여 빛나는것이 혁명가의 인생행로이다. 나는 백문규동무의 값있는 한생을 통하여 이 진리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게 되었다.

기쁨 때나 피로할 때나 변함없이 한모습, 한자세로 살아온 백문규동무처럼 언제나 자기자신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참된 일군이 되었다.

서성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고래일은 이렇게 말하였다.

신념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 행동을 통하여 검증된다.

백문규동무의 생활이 이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천만자식을 한몸에 안아 따듯이 보살피는 당의 은정을 순간도 잊지 말자고, 당을 받드는 마음에 자그마한 리라도 없어서 안된다고 늘 자신을 체찍질하며, 순간순간 량심의 총화를 지으며 현대적인 공작기계를 생산하는데 자

기의 지혜와 정열을 장구히 바치겠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 50여년간을 한직종에서 혁신자라고 떠받들리며 일해오면서

자기가 한 일이 그 무슨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한 위훈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저 이 나라 공민의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백문규동무가 그렇듯 고상한 정신세계를 지니고 살며 일해올수 있는것은 바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우리 당을 언제나 받들어갈 뜨거운 충정이 가슴에 깊이 간직되어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본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일제기 우리 공장에 영도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26호선반을 다루시면서 로동자들을 모범기계장조종수 등으로 불러일으키셨다. 지금 우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이 맡겨준 초소를 굳건히 지켜갈 의지를 다져왔다.

우리는 백문규동무처럼 당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정열을 불태우며 맑은 일을 더 잘하여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